광주 최대 광천동 재개발, 내부 갈등 '잡음'

비대위 "공사·용역 계약 추진 과정 불투명·예산 낭비" 반발
조합측 "사업 추진 위해 계약 불가피…비대위 주장 납득 안돼"
조합원 5명이 제기한 조합 설립 무효확인 소송 8일 판결 주목

사업예산만 1조1300억원에 달해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공사·용역계약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이 공사·용역계약을 투명하게 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시행을 앞두고 미리 내정한 업체와 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9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측이 6일 총회를 열어 예산을 승인받은 뒤 이미 내정된 용역회사와 무더기 계약 체결을 추진하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만연한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개정했다. 법에 따라 모든 공사 관련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투명하게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비대위는 "조합이 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업체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며 "리베이트 등 사적 이익을 위해 범죄예방 대책 수립비(36억7200만원), 주민 이주 관련 용역비(45억원) 등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도시정비법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가 맡아야할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지장물 철거 공사도 상당 부분 따로 떼어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비대위가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범죄예방 대책 수립비는 공사기간 비어있는 집들이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어 CC(폐쇄회로)-TV 설치 등이 필요해서 책정했고, 주민 이주 관련 용역비는 용역업체들이 퇴거가 늦어지는 주민들을 방문해 독려하는데 따른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거 관련 중복 예산이라는 주장과 관련, "도시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4항에 따라 시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만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외 철거공사 업체를 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 법 시행 전에 서둘러 업체 챙겨주기에 나섰다는 비대위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 조합원 일부는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지위도 문제삼고 있다.

비대위쪽 조합원 5명은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주민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하는 절차상 허위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게 골자다. 판결은 오는 8일 나올 예정이다.

법원에서 설립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주민 동의서부터 다시 얻어 서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 일정이 상당 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합측은 조합설립 무효 소송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합 설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평생 노후 지역에서 살아온 조합원들이 모처럼 좋은 아파트에서 살 기회를 얻었는데 조합원 간 마찰로 아파트 공사가 늦어지게 생겼다"며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운영비 등 사업비가 더 지출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선량한 조합원들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천동주택재개발사업은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구역면적 42만6380㎡)에 지하 2층~지상 33층 6335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2346명으로, 2015년 9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16년 12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프리미엄사업단(대림건설·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금호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추정 예산 규모는 1조1307억원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역 최대 규모인 1조 1300억원대 사업비가 투입될 광주시 서구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조합측은 지상 33층, 48개동, 633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동부경찰, 강제추행 40대 DNA 대조
10년전 모녀 상대 강도행각 '딱 걸렸네'

광주의 한 가정집에서 특수강도를 벌인 40대 남성이 10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4일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집주인을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최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2월 25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원룸에 침입해 A(여·당시 47)씨와 딸 B(11)양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또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DNA 대조로 용의자를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일치하는 DNA도 없었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최씨가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풀렸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씨의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10년 전 강도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지만, 최씨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고 풀려난 상태였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벌여 지난 1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 인근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 A씨에게 최씨의 사진을 보여주고 인상착의 일치 여부도 확인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특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영아 옷장 방치 숨지게 한 여성 징역 10개월

광주지법 "살해 고의 있었다"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여·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산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아이를 일찍 출산할 징후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학적 도움을 받기 위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미숙아를 이렇게 출산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영아 사망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28주가량 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이불로 둘러싸고 옷상자에 넣어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튿날 A씨 언니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이혼 후 유부남과 만나면서 아이를 뱄고, 불륜으로 인한 사생아 출산이 치욕스럽고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어려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불법 선거운동 김어준·주진우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 선고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 부분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연합뉴스

나주 닭농장서 화재…12만여마리 폐사

배 선별장에서도 불

지난 3일 오후 3시 3분 나주시 금천면 한 닭 농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은 비닐하우스 형태 계사 14개동을 모두 태웠다.

계사에 있던 육계 12만2000마리도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는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1시간 40여분 만에 겨우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50분께는 나주시 봉황면 배 선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110㎡ 크기 작업장에 있던 공기 압축기 등 기계와 배 800상자가 타 64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정황 등으로 미뤄 작업장 밖에 쌓여있던 폐종이·봉지 더미에서 불이 나 건물로 확대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악천후 피해 귀항하던 어선 전복 1명 사망

악천후를 피해 항구로 돌아오던 어선이 뒤집혀 1명이 숨졌다.

4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여수시 돌산읍 작금항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던 0.56t 소형어선 S호를 붙들고 있던 구모(70)씨와 정모(70)씨가 주변을 지나던 낚시 어선에 구조됐다.

S호는 이날 오전 8시께 돌산 군내 선착장에서 출항했으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작금항으로 피항하던 중 높은 파도에 뒤집혔다.

여수해경은 낚시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저체온증 등으로 건강이 나빠진 익수자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정씨가 결국 숨졌다. 해경은 S호 선장인 구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운림동 일대 공포 떨게 한 멧돼지 마침내 포획…주민들 안도

쌍나팔

○…광주시 동구 운림중학교 운동장까지 들락거리는 등 운림동 일대 주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야생 멧돼지가 동구청이 설치한 철제 포획틀에 포획돼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

○…4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운림동 야산에 설치한 포획틀에 몸무게 60㎏ 크기 암컷 멧돼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포획단체 관계자가 발견했다는 것.

○…동구청은 그동안 멧돼지 포획을 엽사를 투입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왔는데, 동구청 관계자는 "포획틀에 달콤한 과일을 넣어놨더니 멧돼지가 들어왔다"면서 "자치단체에서 포획틀을 이용해 멧돼지를 잡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7타경 51549	1	보성군 조성면 매현리 16-2 1051㎡[이용지분2/13전부]	대	4,717,880 4,717,8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예한함
		보성군 조성면 조성덕촌길106-6 18평[이용지분13분의2전부] 제시외 창고 등 14.2㎡	단독주택		
2017타경 51945	1	순천시 해룡면 선월길 83 72.29㎡	단독주택	82,882,600 82,882,600	일괄매각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522-2 46㎡	대		
		동소 523 179㎡	대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5621	1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349-3 7733㎡	임야	197,134,500 197,134,50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예한함
		동소 산349-4 5932㎡	임야		
		동소 산349-20 6022㎡[물건번호1:김홍연지분1/2전부]	임야		
	2	동소 산349-19 13792㎡	임야	155,595,000 155,595,00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예한함
		동소 산349-27 353㎡[물건번호2:김홍연지분1/2전부]	임야		
2017타경 5744	1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443 1425㎡[토지만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전	125,400,000 125,400,000	
	2	광양시 옥곡면 수평리 81-2 4957㎡	전	581,315,000 581,315,000	일괄매각.목록2~5,7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4자연석제외.목록6연고미상분묘소재.목록7수목제외
		동소 81-3 660㎡	전		
		동소 191-4 1590㎡	답		
		동소 309 1243㎡	답		
		동소 산143-1 3570㎡	임야		
		동소 81 1491㎡	답		
2017타경 8026	1	순천시 상사면 초곡리 산200 9818㎡[제시외건물및수목매각제외]	임야	21,599,600 21,599,600	연고미상분묘소재
2017타경 8095	1	고흥군 도화면 봉산리 산174 36000㎡	임야	39,600,000 39,600,000	
2017타경 8323	1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산95-9 1318㎡	임야	54,038,000 54,038,000	
2017타경 8385	1	보성군 율어면 고죽리 산15-1 15332㎡	임야	44,462,800 44,462,800	연고미상분묘소재
2017타경 8446	1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1303-2 165㎡[농지취득자격증명요.연고미상분묘소재]	전	4,939,500 4,939,500	일괄매각.토지만매각.목록2제시외건물매각제외
		동소 산388-4 450㎡	임야		
2017타경 8507	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36-1 340㎡	답	24,388,000 24,388,000	일괄매각.토지만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37-1 129㎡[물건번호1:비닐하우스의 일부와구조물소재하나매각제외]	답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7타경 8262	1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505-4 604.2㎡	대	376,461,920 376,461,920	일괄매각
		동소 1505-4 349.31㎡[물건번호1:건물등기부상면적349.31㎡이나층축되어건축물대장상면적362.36㎡,건축물대장상면적으로평가하여매각]	음식점		
[자동차,중기]					
2017타경 8989	1	사용본거지:여수시 돌산읍 강남4길 29-18 등록번호:98러2542 차명:동해고소작업차-1409 연식:2014	자동차	43,000,000 43,000,000	보관장소:순천시 가곡동985-3순천자동차매매상사
2017타경 10739	1	사용본거지:여수시 무선4길 39-10 [선원동] 등록번호:34우5293 차명:K7 연식:2012	자동차	13,500,000 13,500,000	보관장소:순천시 충효로25,이수자동차매매상사
2017타경 53781	1	사용본거지:순천시 해룡면 신대리1968, 61 1동 1605호[중흥에스클래스6단지]등록번호:35우0188 차명:CC2.0TDIBMT 연식:2016	자동차	28,500,000 28,500,000	보관장소:순천시 충효로25,이수자동차매매상사
[기타]					
2017타경 7849	1	순천시 조례동 922-4 683㎡	전	3,925,341,800 3,925,341,8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922-4 지하1층306.32㎡ 1층174.66㎡ 2,3층각515.88㎡ 4층102.46㎡ 5,6층각471.7㎡ 제시외 사무실 등 20.1㎡	기계실및목욕장		
		동소 928-36 522㎡	대		
2017타경 9524	1	선적항:사촌항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길성2호 선질:FRP 총톤수:4.95 진수년월일:2009.7.28	선박	64,015,250 64,015,250	정박지또는보관장소:전남여수시돌산읍금천항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8. 2. 19.[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2. 26.[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최성관